

**문제 1** <보기>를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설명하는 여행과 비교하고 논평하시오.  
(800 ± 80자, 40점)

<보기>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5박 6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많은 곳을 누비며 멋진 풍경과 낯선 사람들을 실컷 구경하였다. 가는 곳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을 맛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다. 시간이 되어 아쉬움을 안은 채 돌아 올 수밖에 없었지만, 유적지에서 산 기념품들과 수백 장의 사진들은 그 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준다.

(가) 만주를 우리 영토로 착각할 정도였다. 여권도 필요 없고 검문검색도 없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대평원, 그것은 황량한 신천지였다. 신경의 관동군사령부도 견학할 수 있었다. 대포나 탱크 같은 신예무기도 보여주었는데 까마득한 절망감을 느꼈다. 일본의 세력이 이 광활한 대지 곳곳에 미치고 있음을 실감했다. 우리의 기를 꺾어놓겠다는 것이 이 수학여행의 목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일본의 저력을 보라는 취지였을 것이다. 대련의 기름 짜는 공장을 견학했는데 꾸리(苦力)라고 불리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나체상태에서 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식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검은 빵을 손으로 뜯어서 입에 넣고, 파를 춘장이라 불리는 중국식 된장에 찍어 먹는 것이 전부였다. 만주국을 세운 일제는 오족협화(五族協和)를 부르짖었지만 대우는 일본인 다음이 조선인이고 한족과 만주족은 그 뒤이고 몽골인이 최하였다. 우리는 착잡한 마음이 되어 대구로 돌아왔다.

(나) One departs the home to embark on a quest into an archetypal wilderness that is dangerous, threatening, and full of beasts and hostile aliens. This sort of encounter with the other—both the inner and the outer—requires giving up comfort and safety, accepting cold and hungers, and being willing to eat anything. You may never see home again. Loneliness is your bread. Your bones may turn up someday in some riverbank mud. It grants freedom, expansion, and release. Untied. Unstuck. Crazy for a while. It breaks taboo, it verges on transgression, it teaches humility. Going out—fasting—singing alone—talking across the species boundaries—praying—giving thanks—coming back.

(다) 우리 문화 바깥에 있는 다른 문화들에 대한 인식은 결코 물리적인 이동을 전제하지 않는다. 양식 있는 ‘방콕’ (방에 콕 박혀 있는) 여행자들은 집을 나서 멀리 모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가보지 않는 곳이라도 자기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그 장소들에 대해, 정확하고 열정적으로 서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방콕’ 여행자들은 현장에 너무 가까이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물리적인 여행은 방문하는 장소를 시각적으로 보게 해주지만, 그곳을 심층적으로 보게 해주지는 않는다. 방문지의 외관은 그 장소가 품고 있는 무한한 의미의 제한된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직접 현장을 방문한 이들은 자신이 그 장소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장소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장소가 지닌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 장소의 역동성을 파악할 것을 전제한다. 다시 말하면 여행하고자 하는 장소가 담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는 물론이고 그 장소가 만들어 나갈 수많은 이야기의 가능성까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콕’ 여행은 결코 꿈쩍 않고 머무르는 여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롭고 역동적인 여행을 의미한다. 우리는 상상력과 사유의 힘을 통하여 보다 고차원의 여행에 나설 수 있다. 낯선 장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또한 그 장소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는지에 유의하면서, 자기 내면의 힘을 통한 여행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라) 소리 없는 죽음을 뚫으며 올라가는 트레킹, 아니 잘못된 관광산업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02년부터 캠페인을 펼쳐 온 영국의 관광감시 NGO 활동가는 이렇게 꼬집는다. “사람들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포터들은 보통 사람과 달리 무거운 짐을 가볍게 나를 수 있고, 높은 고도에서도 고산증 따윈 상관없고, 영하의 날씨 속에서 슬리퍼에 면바지만 입어도 감기에 걸리지도 동상에 걸리지도 않는 슈퍼맨 같은 존재라는 이상한 믿음을. 하지만 히말라야를 오르는 많은 포터들은 낮은 구릉지대에서 농사를 짓다가 가난에 못 이겨 산에 오르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죠.”

안나푸르나 지역 군데 병원에서 포터들을 치료하는 의사는 해마다 평균 2천여 명의 포터들이 동상, 고산증, 실명, 낙상과 부상 등으로 병원을 찾아온다고 했다. 그 의사를 찾아오는 이들은 그래도 살아남은 이들이다. 히말라야 트레킹, 티베트 카일라스 트레킹 혹은 아프리카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사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포터

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포터에게 보험은 들어주었나요? 품삯은 누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포터에게 전달되나요? 포터들에게 추운 날씨와 고도를 견딜 수 있는 장비와 숙소가 제공되나요? 여행은 누군가의 인권을 빼앗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권의 장을 여는 평화의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문제 2-1>, <문제 2-2>, <문제 2-3>에 답하시오.  
(1000 ± 100자, 60점)

(가) 그리스에서 시작된 남유럽의 재정위기 사태를 계기로 채무국의 국가부도와 채무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국가부도란 특정 국가가 자금부족으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러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유예를 선언하는 경우를 일컫으며, 채무조정은 부채감축, 만기연장, 현금지급 등의 방식으로 채무국의 부채를 재조정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가운데 부채감축은 채권국이 채무국의 부채상환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원금의 일정 부분을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실제 2000년을 전후하여 부채위기를 겪은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60%에 가까운 원금이 탕감되었으며 에콰도르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27%, 38%의 부채경감이 이루어졌다.

부채가 감축될 때, 탕감된 액수는 채권국의 손실로 귀속되기 때문에 채권단의 저항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국은 채무국에 대해 부채감축의 조건으로 재정건전화와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채무국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채무국의 경제체질이 제고되고 수출이 증대됨으로써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으로 경제위기가 파급되는 효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무임승차문제(free-rider problem)는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재화가 주는 혜택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다는 문제를 일컫는다. 무임승차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 버스 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비용, 즉 버스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버스의 뒷문이 부서져 있어 사람들이 뒷문을 통해 요금을 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타고 내린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모든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버스의 뒷문을 고치거나 무임승차 승객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버스의 운행은 곧 중지될 것이다.

부채감축은 채권국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통분담과 관련하여 채권국 사이에 무임승차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는 채무국에 대한 부채감축에 동참하지 않은 채권국이 부채탕감에 따른 원금 손실은 보지 않는 반면, 채무국의 구조조정에 따른 혜택(즉 부채상환능력 개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임승차문제로 인해 채무조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실 분담과 관련하여 채권국 간의 실효성 있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다음은 세 개의 가상 국가들 간의 부채 현황 및 상환 가능성에 대한 가정들이다.

- ◆ 가정 1: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채무국 A는 금년 말 기준으로 채권국 B와 채권국 C에게 각각 150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으나 현 상태로는 부채를 모두 상환할 능력이 없다.
- ◆ 가정 2: 채무국 A는 만약 내년에 경기가 호전되어 부채상환 능력이 개선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남아 있는 부채의 전액을 상환할 것이나, 경기가 악화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무조건 30억 달러만을 지급한다.
- ◆ 가정 3: 내년도 경기 호전 및 악화의 가능성은 아래 표와 같이 채무국 A의 구조조정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경기 변동 확률	구조조정이 없는 경우		구조조정이 있는 경우	
	경기 호전	경기 악화	경기 호전	경기 악화
	1/3	2/3	1/2	1/2

- ◆ 가정 4: 채무국 A는 자발적인 구조조정 의지가 없으며, 채권국이 부채를 감축해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구조조정에 임한다.

- ◆ 가정 5: 채무국 A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이 경기 변동(호전 또는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채권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 2-1> 제시문 (다)에서 주어진 수치를 이용하여 내년에 채권국 B와 C가 각각 채무국 A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expected payment)을 다음 네 가지 경우에 대해 모두 계산하시오.

- ① B국과 C국 모두 A국에게 부채감축을 해주지 않는 경우
- ② B국과 C국 모두 A국에 대해 부채를 30억 달러씩 감축해 주고 구조조정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 ③ B국이 A국에 대해 30억 달러만큼 부채를 감축해 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반면, C국은 부채감축을 해주지 않는 경우
- ④ B국과 C국 모두 A국에 대해 30억 달러씩 부채를 감축해 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 2-2> 문제 2-1에서 구한 답을 활용하여 채권국이 부채감축의 대가로 채무국에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시오.

<문제 2-3> 문제 2-1에서 구한 답을 활용하여 채권국간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설명하시오.

◇경상

－ 출제의도

[문제 1]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지문들이 전하려는 의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본 문항의 기본 취지이다. 이를 위해 여행이라는 소재와 비교라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여행에 관한 여러 지문들을 주고 그에 대한 이해력을 <보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드러내도록 하였다. 단순한 요약보다 다른 글과의 대조점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높은 이해도를 보이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이 점을 변별력의 기초로 삼았다. 영어 지문이 쉬운 낱말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이해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 또한 답안지의 우열을 변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문제 2]

본 문제는 역사적으로 자주 발생했던 대외채무와 채무조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문 (가)는 채권국 입장에서 채무감축이 가져올 수 있는 trade-off 문제를, 제시문 (나)는 채무감축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채권국간의 free-rider 문제를 지적한다. 이러한 개념을 제시문 (다)의 수치와 결합하여 채권국이 채무감축의 대가로 채무국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조건과 채권국간의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분석,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1) 각 지문들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가?

- ▶ 제시문 (가): 수학여행처럼 기획된 여행이 갖는 의미.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찾을 수 있게 되는 여행지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
- ▶ 제시문 (나): 일상의 삶과 떨어져 보는 여행의 의미. 그를 통한 자아와 인식의 성장.
- ▶ 제시문 (다): 내면의 여행이 갖는 특징과 가치.
- ▶ 제시문 (라): 현지의 삶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여행의 추구.

(2) 영어 지문인 (나)를 이해하는가?

어떤 이는 집을 떠나 위험천만하고 짐승들과 적대적인 이방의 것들이 우글대는 원형적인 광야로 탐험을 떠난다. 자신의 안팎에 있는 타자(他者)와의 이러한 만남은 안락과 안전을 포기하고, 한기(寒氣)와 굶주림을 감수하고,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먹을 것을 요구한다. 너는 집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고독은 네가 삼켜야 할 빵이다. 너의 뼈는 먼 훗날 어느 강기슭 진흙 속에서 발굴될지 모른다. 탐험은 자유와 확장과 해방을 허락한다. 속박이 없는. 고착이 없는. 얼마 동안 미친. 그것은 금기를 깨뜨리고, 일탈에 근접하며, 겸손을 가르친다. 집을 떠나—금식하고—외로이 노래하고—종(種)의 경계를 가로질러 대화하고—기도하고—감사하고—돌아오는.

(3) 적절한 비교가 이루어지는가?

<보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즐기는 여행의 모습 (패키지 여행일 수도 있다).

- ▶ 제시문 (가)와의 비교: <보기>는 정형화되고 기획된 여행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그를 통한 사회적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채 개인적 즐거움에 그친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 ▶ 제시문 (나)와의 비교: 낯선 곳을 찾아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추구하는 점이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고행을 통한 성찰이라는 점에서 <보기>와 다르다.
- ▶ 제시문 (다)와의 비교: 현지로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고, 나아가 그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보기>의 내용과 근본적인 대립을 보여준다.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대목이어서, 굳이 찾자면 현지에 대한 기억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정도일 것이다.
- ▶ 제시문 (라)와의 비교: <보기>에 제시된 여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일 것이며, 현지의 삶을 그저 구경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생각할 수 있다.
- ▶ 논평: 개인적으로 다양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결론은 앞에서 이루어진 비교 분석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평가 등급 구간	평가 핵심 내용	비고
1~2	지문 내용의 이해, <보기>와의 비교를 논리적이고 적절하게 전개하면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한 경우	동일 등급구간에 서의 등급 차이는 영어 지문의 이해 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3~4	지문 내용의 이해, <보기>와의 비교를 적절하게 전개하지만 한두 지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더러 논리적 비약이 나타나는 경우	
4~5	지문의 이해와 비교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구성을 갖추고는 있지만, 내용이 빈약한 경우	
5~6	지문 내용의 이해, <보기>와 비교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정확하지 못한 경우	
6~7	지문의 내용은 이해하지만 <보기>와 거의 비교해 내지 못하는 경우	
7~8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공통 평가 항목

- ▶ 이해력(30%)
- ▶ 통합적 사고력(30%)
- ▶ 독창성(20%)
- ▶ 구성 및 표현력(20%)

<문제2-1 답안>

- ①의 경우: 부채감축이 없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150억 달러씩을, 경기가 악화된다면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부채감축이 없으면 구조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정 3)과 (가정 4)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3, 2/3이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150 \times \frac{1}{3} + 30 \times \frac{2}{3} = 70$ 억 달러이다.
- ②의 경우: 두 채권국 모두 30억 달러씩 부채를 감축해 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120억 달러(즉, 기존부채 150억 달러-감축액 30억 달러)씩을, 경기가 악화된다면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부채감축에도 불구하고 두 채권국 모두 구조조정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가정 3)과 (가정 4)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3, 2/3이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120 \times \frac{1}{3} + 30 \times \frac{2}{3} = 60$ 억 달러이다.
- ③의 경우: B국만 30억 달러 만큼 부채를 감축해 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B국에게 120억 달러를, C국에게 150억 달러를 지급한다. 만약 경기가 악화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한편 B국이 부채감축의 대가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므로, (가정 3), (가정 4), (가정 5)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2, 1/2이 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가정 5)에 의해 경기변동확률의 변화가 B국뿐만 아니라 C국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120 \times \frac{1}{2} + 30 \times \frac{1}{2} = 75$ 억 달러,  $150 \times \frac{1}{2} + 30 \times \frac{1}{2} = 90$ 억 달러이다.
- ④의 경우: 두 채권국 모두 30억 달러씩 부채를 감축해 주므로 (가정 1)과 (가정 2)에 따라 A국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면 두 채권국에게 각각 120억 달러씩을, 경기가 악화된다면 30억 달러씩을 지급할 것이다. 또한 두 채권국 모두 부채감축의 대가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므로, (가정 3), (가정 4), (가정 5)에 의해 내년도 A국의 경기호전확률과 경기악화확률은 각각 1/2, 1/2이 된다. 따라서 내년에 B국과 C국이 A국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은 각각  $120 \times \frac{1}{2} + 30 \times \frac{1}{2} = 75$ 억 달러이다.

<문제 2-2 답안>

채권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구조조정 없는 부채감축(②의 경우)은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①의 경우)보다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7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감소시킨다. 반면, 구조조정조건이 동반된 부채감축(③ 또는 ④의 경우)은 예상금액을 70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증가시킨다. 따라서 채권국은 부채상환 의지를 고취



시킴을 위해 부채의 일부분을 탕감해 주는 동시에 채무국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채감축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예상 상환금액이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국은 부채감축의 대가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환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와 구조조정 없는 부채감축의 경우보다 클 때에 이에 입할 것이다.

### <문제 2-3 답안>

③의 경우에 따르면, B국이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A국의 채무를 30억 달러 감축해줄 때 예상되는 상환액은 75억 달러로 부채감축이 없는 경우(70억 달러)에 비해 유리해진다. 하지만, B국이 구조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A국의 경기 호전 확률이 1/3에서 1/2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 결과 부채를 탕감해 주지 않은 C국이 받을 수 있는 예상 상환액도 7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즉 C국이 B국의 구조조정 요구 및 부채감축에 무임승차한 결과 B국보다 더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B국 역시 C국이 먼저 부채감축을 실행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먼저 부채를 탕감해 주는 채권국이 다른 채권국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 지기 때문에 부채감축 계획은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국의 예상 상환액은 70억 달러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④의 경우에서와 같이 모든 채권국 (B,C)이 함께 채무국의 부채를 감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부채감축에 따른 손실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채권국 모두 예상 상환액을 75억 달러로 증가시킬 수 있다.

평가 등급 구간	평가 핵심 내용
1	<p>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경우</p> <p>1. &lt;문제 2-1&gt;에서 ①, ②, ③, ④번의 값을 정확히 계산 한 경우.</p> <p>2. &lt;문제 2-2&gt;에서는 &lt;문제 2-1&gt;의 옳은 답을 활용하여 정확히 제시하고(구조조정의 요구가 없는 경우의 예상 상환금액은 7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감소, 구조조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예상 상환금액은 70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증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한 경우.</p> <p>3. &lt;문제 2-3&gt;에서는 &lt;문제 2-1&gt;의 옳은 답을 활용하여 정확히 제시하고(B국의 예상 상환금액은 75억 달러이고 C국의 예상 상환금액은 90억 달러이므로, C국이 B국 보다 더 큰 이득임),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한 경우.</p>
2	<p>1. &lt;문제 2-1&gt;에서 ①, ②, ③, ④번의 값을 정확히 계산 한 경우.</p> <p>2. &lt;문제 2-2&gt;에서는 &lt;문제 2-1&gt;의 옳은 답을 활용하여 정확히 제시하였지만,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제시문 직접인용)</p>



	3. <문제 2-3>에서는 <문제 2-1>의 옳은 답을 활용하여 정확히 제시하였지만,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경우.(제시문 직접 인용)
3~4	<문제 2-1>에서 ①, ②, ③, ④번 중 한 문제 틀린 답을 제시하였지만, <문제 2-2>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문제 2-3>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충분히 설명한 경우.
5~7	<문제 2-1>에서 ①, ②, ③, ④번 중 두 문제 혹은 세 문제의 틀린 답을 제시하였고, <문제 2-2>에서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문제 2-3>에서 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제시문을 활용하여 충분히 설명한 경우.
8~9	<문제 2-1>에서 모두 틀린 답을 제시하고, <문제 2-2>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문제 2-3>무임승차문제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

◇ 공통 평가 항목

- ▶ 이해력(30%): 제시문의 요지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 ▶ 분석력(40%): 제시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계산능력
- ▶ 통합적 사고와 적용력(20%): 제시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
- ▶ 표현력(10%): 문장표현, 분량, 맞춤법 및 원고지 사용법